



CONTENTS 2025.01

아버지학교 30년, 빛나는 순간들	02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걸어갈 30년 김성목_고문 최성완 이사장	08
디즈니랜드 같은 나의 아버지학교 김마루_LA/오렌지카운티 아버지학교 지부장	12
아버지보다 중요한 원칙에 권위를 두라 손봉호_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4
천국에 가셔도 당신은 나의 신부, 산티아고를 걸으며 수없이 부른 노래 장이규 이선아_부부	18
그저 함께라서 좋은 부부의 기쁨 김우남 방경희_부부	20
파하모니, 함께 부르는 노래 신현구_광주아버지학교 파하모니합창단 단장	23
섬김의 길을 선택한 아버지학교 사람들 이해달_본부15기 수료 장상태_평촌1기 수료	26

아버지학교 30년, 빛나는 순간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그 길을 열어 드리고자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버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받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故 하용조 목사, 두란노아버지학교 초대 이사장



허깅

아버지 사랑의 역사

아버지학교는 허깅으로 시작해서
허깅으로 끝납니다.
아버지학교 30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인사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허깅은
아버지 사랑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호

주님 앞에 선 아버지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다짐과 외침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아버지들이 다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칠 때마다, 아버지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나눔

아버지학교의 역동성

아버지학교의 역동성은 나눔에 있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는 세대와 지역, 학벌 등 어떤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고, 단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나눔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후, 결혼 전에 미리 장로회신학대학교 1기(동부 88기)를 수료한 차현우 님이 수료소 감문을 나누고 있다.



섬김

아내의 발을 씻기며

수많은 아버지가 아버지학교에서 소중한 아내의 발을 씻기며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가정을 돌보고, 지키겠다는 지극한 마음의 약속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넘칩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강한 나라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긴다는 건 혁명에 가깝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버지학교에서 경험하며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섬김의 기쁨을 배우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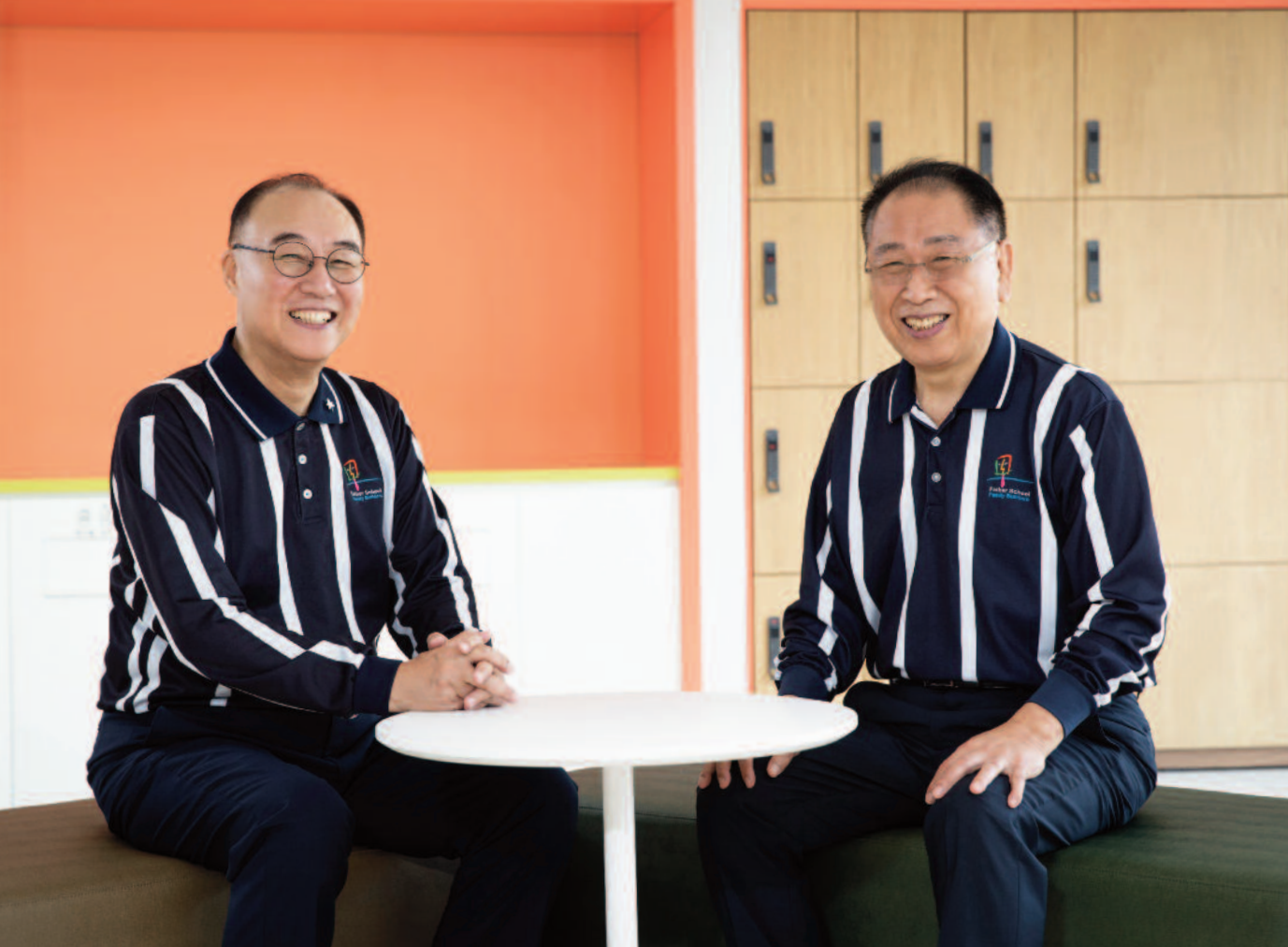
순결

삶의 실천운동

아버지학교 수료식 날,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앞에서
순결예식을 갖습니다.
성경적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 배지를
달며 아버지가 먼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2023년 2/28~3/3까지 볼어권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코트디부아르 현지인 아버지학
교가 아비장에서 열렸다. FEC(코트디부아르
기독교연합회) 산하 초교파 현지 목회자들 백
명이 지원, 구십구 명이 수료하였다.



최성완
두란노아버지학교 4대 이사장

김성묵
두란노아버지학교 고문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걸어갈 30년

두란노아버지학교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44만여 명의 아버지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학교 공동체 영성으로 손을 맞잡고 담대히 일어나 온갖 위기와 절망을 뛰어넘으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걸어갈 30년! 두란노아버지학교 김성묵 고문, 최성완 이사장과 함께 아버지운동 30년의 발자취와 미래 30년의 꿈을 향해 걸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김성묵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황은철 목사님과 도은미 사모님이 미국에서 선포적인 역동을 일으켰던 프로미스 키퍼스(Promise Keepers)에 도전 받고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학교를 시작하셨고, 저는 1995년 10월에 가정 이 교회와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학교는 또 뭘까?' 하는 호기심으로 참석했죠. 아버지학교 1기를 수료하고, 두 분을 도와서 조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7번 정도 진행했는데, 그분들이 브라질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아버지학교를 맡아달라' 부탁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아버지학교가 잠시 중단되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초창기 아버지학교를 섬겼던 형제님들을 불러서 1박 2일 "어떻게 아버지학교를 계속 이어갈까?" 논의를 거쳐 아버지학교 강점을 살리는 몇 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학교는 남자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이 강점이니, 평일보다 토요일에 아버지학교를 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 다. 우려도 있었지만,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나눔을 충분히 가지도록 토요일에 아버지학교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 밖에 없다" 하고 매주 금요일 기도모임을 시작했죠. "하나님, 지원자를 보내주

세요! 아버지학교를 만들게 하시고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희 문 닫습니다" 그렇게 절실한 기도가 아버지학교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아버지학교를 알리는데 전심전력하니 서서히 20명, 30명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7~8명이 오기도 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든 가서 아버지학교를 열겠다는 형제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아버지학교를 지속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최성완 아버지학교와 저의 첫 만남은 1999년 말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본부 21기였습니다. 교육관 지하에 있는 시온홀에서 첫 주차가 열렸는데, 첫 시간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주님, 제가 아버지 맞습니까?" 되물고 있었죠. 평소 관창은 아버지하고 자부해 왔지만, 주님 앞에서 갑자기 부끄러워졌던 거죠. 또 '아버지의 영향력' 전체 나눔 시간에 장상태 진행자님이 제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나갔을 때 "형제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물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대답해놓고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당혹스러웠지요. 당시엔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아버지

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다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가슴에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신이 겪은 상처와 아픔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하면서 순기능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들에게 빛진 자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묵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은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버지 개인의 정체성을 깨우치는 문구라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는 소명 받은 자로서 아버지들의 사명을 알깨우는 무브먼트_Movement를 이미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뜻이죠. 아버지학교는 세미나 이상이어야 한다는 걸 아버지학교가 거듭될수록 깨닫게 된 거죠. 인간 삶이 세미나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버지학교는 두 가지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스스로 실천하는 운동(Practice), 두 번째 나와 가족이 함께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하고, 이렇게 사회로 확장하는 운동(Movement)입니다.

▪《아버지》_한정수라는 중년 아버지가 체장 압에 걸린다는 설정을 통해, 아버지들의 고독과 가족의 화해를 다룬 작품, 1997년 문이당에서 출판,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영화 아버지에서는 배우 박근형이 아버지역을 맡았다.
출처_위키백과

이것이 아버지학교 하이라이트!

최성완 아버지학교 과정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중 하나만 꼽으라면 ‘나눔’을 꼽겠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조별나눔과 전체나눔에서 역동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들이 프 라이버시라 할 수 있는 가정사를 누군가와 마음 놓고 터놓을 곳이 드문데, 아버지학교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애환을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열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직면할 용기도 얻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남자끼리의 수다”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이 나눔 덕분에 두 번째 만남이 끝날 즈음엔 참석한 아버지들 사이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끈끈한 유대감(형제애)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숙제’인데요, 아버지학교 숙제는 자신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내,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익숙해진 일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 남편의 마음을 숙제를 통해서 솔직히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숙제를 하면서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정리되는 것 같았다” 고백하더군요.

김성묵 저는 아버지학교의 하이라이

트, 가장 강력한 특수성으로 ‘역동’을 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 예식”이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필요한 때 예식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학교도 성령의 강한 영동(靈動)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격적인 만남(나눔), 기준을 제시하고 도전해 주는 말씀(강의), 예식(사명선언/순결예식/세족식)이 조화를 이루며 역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동이 숙제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사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최성완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한 목회자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내린 결론은 “사람은 잘 안 변한다. 특히 남성들 아버지들은 참 안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그런 분들 마음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들 삶을 변화시키더라, “아버지학교야말로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최고가 아닌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김성묵 기독교는 종교나 철학이 아니거든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관계,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학교가 다루는 게 바로 ‘관계, 삶의 방식’이거든요. 믿음은 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 우리(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학교를 충실하게 하면 삶도 새롭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들과 함께한 아버지학교

김성묵 아버지학교 초창기, 한국사회에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당했던 아버지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1997년 김정현의 ▪《아버지》라는 소설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거의 모든 아버지가 읽었다 할 정도였죠. 어떤 아버지는 자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애들 자는 방에 갖다 놓고 했답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오르는 시점에 IMF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이 한국사회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고 믿었던, 목숨 바쳐 일했던 직장이 무너지니까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가 서울역으로, 영등포역으로 나오고 그랬죠. 그런 아버지들을 부둥켜안은 게 누구냐면 아내였어요. 자녀였어요. 그런데 평소 가정을 등한시했던 사람들, 큰소리치고 살았던 아버지들은 거의 삶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IMF를 ‘가정’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베이스캠프는 ‘가정’이구나! 거기에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바깥에만 나가 있었구나!



절실한 기도는 아버지학교의 전통



2024년 4월, <달려라 풍당, 행복한 가정 레이스> 챌린지 오픈

당시 놀랍게도 아버지학교가 열리면 60명,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2000년도 KBS <추적60분> 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내몰린다고 하는데, 그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원인이 뭔지 다 알겠는데,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성들을 위한 상담소에도 몇 군데 가봤는데, 이래서는 문제가 안 풀릴 거 같다고, 그러다 아버지학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만나주겠는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다 챙겨서 왔더니, “이거네요!” 하더군요. 그때 일산동안교회에서 아버지학교 5주 차를 진행하니, 가서 보시길 권했고, 그분들이 현장을 찍어서 거의 20분 가량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 모습이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보는 방송이라서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KBS <아침마당>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그 방송은 엄마들 할머니들이 많이 보시죠. 아버지학교를 통해 변화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부부를 추천했습니다. 그 남편이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내 최종학력은 아버지학교”라고 했고, 그 이야기가 거의 전국, 전세계로 방송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미 아버지학교는 대구에서 포항으로 부산으로 광주로 거점도시를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요청이

오면 어디든 아버지학교를 연결해 줄 수 있었죠. 광주에서 열리면 대구, 부산 스태프 형제님들이 출동해서 돕고, 품앗이처럼 서로 연합하여 아버지학교를 활발히 펼쳐가던 때였습니다. 아버지학교가 이렇게 뿔어 나가니까, 교도소에서 기업체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제가 특별히 군대에서 아버지학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남성들만 모인 집단에서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다 들어간 거죠.

아버지의 큰 기쁨을 찾아서 함께 걸어갈 30년

최성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으로 아버지학교에 상당한 위기가 왔었습니다. 약 2년 반 동안 아버지학교가 전혀 열릴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간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잠시 멈춰서 아버지학교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줌(zoom)기능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on-line) 아버지학교를 개발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엔데믹으로 요즘은 비대면은 물론이고 대면 아버지학교도 다시 활발하게 열리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비교적 젊은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정 밖에서 대부분 시

간을 보내다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아내, 자녀,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것입니다. 젊은 지원자들은, 대체로 아내나 지인의 권면으로 등 떠밀려서 아버지학교를 오던 과거와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역할을 잘해보겠다는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편입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근본적인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학교의 전문성은 아버지학교를 섬기는 헌신자들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 선배로서 아버지의 길을 조명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지역, 지위, 학벌, 인종을 넘어서 아버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영향력(1주) 아버지의 남성(2주) 아버지의 사명(3주) 아버지의 영성(4주) 아버지와 가정(5주)을 공부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갈 아버지학교 30년, 아버지 됨의 큰 기쁨(파더스 딜라이트_Father's Delight)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는 아버지의 현재가 미래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디즈니랜드 같은 나의 아버지학교

LA/ 오렌지카운티 아버지학교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마루 형제님께서 산호세아버지학교 35기 지원자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어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 그에게 아버지학교는 디즈니랜드와 같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팬데믹 기간에 열렸던 온라인아버지학교를 수료한 김마루 형제입니다. 그 때 걸려버린 아버지학교 뒷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김은혜와 모든 게 크레이지하게 비싸져 버린 LA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자랐고, 분명 크리스천인데,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 말고도 두 여자가 더 있습니다. 첫째 딸 김보배(5살), 아빠를 닮아 쇼맨십과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두 달 전에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로는 십 대와 같은 언행을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할 때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너 고장났어?”라고 어색한 직역체를 그것도 반말로 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또 다른 한 여자, 일 년 전 태어난 둘째 김보라입니다. 지난달에 영문도 모른 채 돌잔치를 맞았는데, 돌잡이를 하면서 자기 바로 앞에 있던 판사봉을 곧~~이 밀어내고 곧~~이 멀리 있는 마이크를 잡아버렸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로서 욕심은 없습니다.

우리 보라가 그저 평범하게, 가수 로제처럼 “아트 아파트” 같은 소박한 노래와 앨범을 내는 아티스트로 자랐으면 좋겠고, ‘부르노 마스’ 같은 평범한 미국 친구들과 교제하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할 뿐입니다. 보라야, 정말로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은 여러분에게 디즈니랜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학교가 믿거나 말거나 저에게는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연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을 향해 다가가는 시기였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서 미안하기만 했던 시절이며, 돌아보면 눈물뿐인 나날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내, 그 시절 여자친구가 어느 날 디즈니랜드를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티켓도 와이프가 샀지요. 돈이 없어 막막하고, 꿈꾸는 것도 사치라 느껴지고, 결혼식은 대체 무슨 돈으로 하나. 그런 생각으로 우울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중 디즈니랜드를 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공간을,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던 그곳을.

나는 차디찬 현실, 어둡디어두운 일상을 사는데, 디즈니랜드는 꿈이 현실이요, 현실이 꿈인 듯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화려한 꿈의 동산과 세상 암울하고 찌질한 나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꿈쩍한 대비는 밤이 되자 절정에 달했습니다. 밤하늘에 형형색색 폭죽이 터지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를 자꾸 훌쩍대서 아내가 알아차려 버린 거 같았습니다. 내 팔짱을 끼더니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디즈니랜드 밤하늘에 폭죽이 펄펄 터질 때마다, 내 마음속 눈물샘도 펄펄 터졌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아무것도 없이 어둡고 처절한 나를 받아준 아내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이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한 곳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내의 눈을 멀게 하였고, 아무것도 없는 한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내 인성의 실체가 바닥을 드러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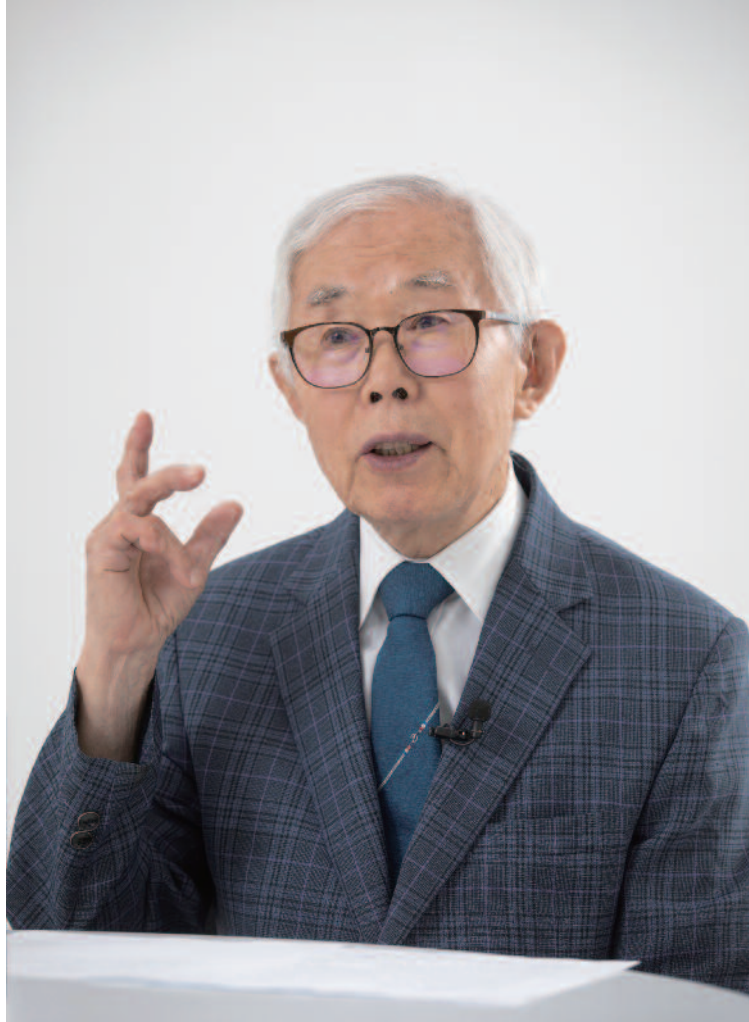
평생 술에 절어 살며, 매일 밤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고, 어린 나에게 으름장을 놓고, 손찌검하던 내 아버지의 아들답게. 서로를 원수보다 더 꿈쩍한 괴물로 여기고 증오하며 자녀에게 이혼을 선물로 안겨준 엄마 아빠의 아들답게. 공가루 집안, 가정폭력의 환경에서 자라며 매일 밤 석촌호수에 몸을 던지려고 뛰쳐나가던 중학생 때의 반항아 김마루답게. 나의 거친 모국어와 서슬 퍼런 자아를 뱉어내며 사랑하는 아내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학교를 만났습니다. 척척한 남자들이 떼거지로 모여,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면서 뭐랄까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김마루_LA/ 오렌지카운티 아버지학교 지부장

네 번의 만남 속에서 울고 웃는, 참 수다스러운 아재들을 보며 동병상련의 애잔한 마음이 들었고, 또 10년 20년 30년 넘게 아버지학교를 섬기는 선배님들의 순수함과 가정 회복을 위한 뜨거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감동과 혜택을 더 많은 분이 접하고 누리도록 LA와 오렌지카운티 아버지학교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형제님과 함께 미국 지역과 나아가 파라과이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에서도 계속 아버지학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게는 아버지학교가 디즈니랜드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임을 알게 해준 ‘행복동산’이 바로 아버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밀알복지재단 초대 이사장

아버지보다 중요한 원칙에 권위를 두라

20여 년 전 어떤 분이 아내, 자녀와 관계가 힘들다기에 “아버지학교 한번 가봐라” 권한 적 있어요. 갔다 와서 그렇게 고마워해요. 자기가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때 아버지학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녀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무려 44만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셨다니 놀랍습니다. 아버지학교가 많은 가정에 큰 이익을 주지 않았나, 교회나 사회에도 엄청난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네델란드의 심리학자 바우텐데이크 F.J.J. Buytendijk는 “남자는 세상을 넓게(extensive) 보고, 여자는 세상을 세밀하게(intensive) 본다”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대조라고 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키워야 하니까, 아주 섬세하게 아기를 관찰해야 합니다. 거기 집중하려면 바깥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죠. 반면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바깥세상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비록 아버지의 권위가 약해졌지만, 그래도 특히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 가정의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진다” 인지하고, 또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 건강, 행복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각오로 노력해야죠. 심지어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실 분”이라 믿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런 각오와 노력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의 신임을 바탕으로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 인간성, 사회성을 키워갈 기본’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려면 “아버지가 말하는 건 옳다”라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리 쉽지 않

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주로 바깥에 나가 일하느라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집에 와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어렵죠. 사랑하되 아버지는 반드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기본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절대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정도의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시시콜콜 사소한 일까지 울타리를 너무 좁게 치지는 말고, 아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울타리를 서서히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보다 중요한 원칙에 대하여

그런데 그걸 완벽으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잖아요. 어떤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누구나 100%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지만,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면 성경적인 권위는 서지 않습니까? 도덕적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정직해야 한다, 불공정하면 안 된다” 적어도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

력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애들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보다 ‘원칙’이 더 중요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만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가 주장하는 원칙, 도덕성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건전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라는데, 정말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정직하고, 철저히 공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동시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자신도 자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건 자녀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녀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면 민주적이 돼야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까지 장성한 자녀들 일에 간섭하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됩니다. 뒤로 물러서서 “이제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 세상이다, 하고 그때는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면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숙한 자녀라도 도와 달라면 도와줄 수 있지만, 사사건건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동시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자신도 자라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건 자녀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서 아버지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삶의 기준에 대하여

험한 세상을 살면서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상당히 많죠. 그럴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뭐 어쩔 수 없었다, 당연하다' 타협해버리면 기준이 안 섭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성경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사춘기 이상이 되면, 그거라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당한 각오와 손해를 보면서도 원칙대로 사는 게 바람직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쉽게 그러면 안 되겠죠. 진실로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나를 희생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저 차오른 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사랑스러운 사

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예요. 현대사회에서 인간 삶은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엄청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괄적인, 전체적인 인식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는 전체 우리 삶의 위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걸 책임져야 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랄까, 늘 고민해야죠. 그것이 아버지의 영성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버지 순결에 대하여

아버지학교 수료식에서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 배지를 아내가 달아주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른 삶을 살겠다는 순결예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의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의식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새기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저 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엄청나죠. 사실 순결은 부부관계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고, 다른 종교는 '신이 사람을 낳았다'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그들이 사람을 낳았고 가르칩니다. 육체적, 생물학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유교는 부자(父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부부(夫婦)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 부부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피의 관계가 아니죠. 전혀 다른 피를 가

진 사람들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 그 서약을 지키며 사는 거죠. 아버지학교 순결예식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니까.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은 다 동물이고,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마련이고, 그걸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 아닙니까? 짐승의 세계는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소위 '당위'라는 게 있어요.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를 당위라고 하거든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그겁니다. 동물은 당위가 없어요. 내키는 대로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급인간은 동물과 같아요. 당위를 무시해버려요. 고급인간일수록 당위를 지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고급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당위에 충실하냐, 그 당위가 우리에게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수준이라든가, 성경의 표현대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감이라든가,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지켰을 때는 '나는 하급인간이구나!' 알아야 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원칙대로 살려는 사람을 고리타분하다고 무시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사회에 큰 방해거리죠.

서양에는 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은 의무가 엄청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전쟁이 나면 먼저 귀족이 나가서 전사하고, 그것이 인간의 질(質)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고급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야죠. 진정한 행복은 고급인간이 누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라도 원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을 누려요. 우선 육체의 욕구를 따르면 즐겁고 행복할 거 같은데, 오래가지 못하죠.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진짜 행복해진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꼰대와 어른의 경계에서

'어른'은 젊은 세대를 상대할 때, 그가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합니다. 가령 대학생에게 초등학교생 대하듯 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 이거는 보편적인 겁니다. 아무리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해요. 꼰대라고 욕을 먹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째째하게 작은 것,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걸 너무 주장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민주주의 시대에 자기주장을 마구 우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꼰대 소릴 듣죠. 민주주의는 상대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뭐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꼰대는 분명히 있고, 꼰대는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엄격하게 조심해서 구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들이나 저나 구십이 가까운데, 그 친구들 가운데도 여전히 핏대를 막 올리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뭐 맘에 안 든다고 고향을 치면, 내가 늘 "우리 세상 아니야!" "우리 세상 아니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칙 같으면 주장해야죠. 그러나 '이게 지혜로운 거다, 아니다' 할 때는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저는 입을 딱 다물입니다. 다만 누가 물으면 내 생각은 이렇다, 말하죠. 내가 먼저 이렇다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학교 30주년을 축하하며

아버지들이 올바른 세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 모두 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지난 30년간 아버지학교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많은 가정의 덕을 봤을 것이고, 많은 자녀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국에 가셔도 당신은 나의 신부, 산티아고를 걸으며 수없이 부른 노래

동부아버지학교 92기를 수료한 천호제일감리교회 담임목사 장이규 형제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원하셔서 매 주차 아버지학교 숙제는 물론이고, 전 과정에 모범적인 자세로 임하여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에게 쓴 편지'와 '아내 이선아 님의 답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선아 씨! 오랜만에 당신 이름을 부르고 편지를 쓰려니 무척 어색하지만, 옛날 연애했던 기분이 들어 행복하네. 벌써 우리 결혼한 지 31주년, 신혼생활, 제주도 군목생활, 미국 유학시절 그리고 한국 목회 18년. 그동안 일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지. 물론 아직도 고생하지만, 고맙고 감사해. 당신이 표현하지는 않았어도 순간순간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적절하게 응답도 못 하고, 감사도 잘 표현하지 못해 미안할 뿐이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잘 안 되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목젖까지 보이며 호탕하게 웃는 해맑은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

우리가 서로 "섬섬옥수, 손가락이 이쁘다" 이야기하며 자랑 아닌 자랑에 촌스럽게 웃던 시절, 31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맙고 또 감사할 뿐이야. 늘 보면 내가 실수를 하는데, 당신이 먼저 화를 풀어 여백을 만들어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서 깊이 고마워해. 사랑하고 존경해. 당신에게 항상 미안한 것은 장인 장모님 살아생전에

잘 찾아뵙지 못한 일. 바쁘다는 핑계로, 진해가 멀다는 핑계로... 당신은 내가 피곤할까 봐 가고 싶어도 잘 가지 못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잘 읽고 알아서 했어야 하는데, 지나보니 미안한 것뿐이야. 정말 미안해.

나는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자러 들어가서 하일이, 하림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데, 당신은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이야기해주고, 참 좋은 엄마야. 우리 아이들은 축복받았어. 이렇게 좋은 친구 엄마가 있으니. 나도 옆에서 보면 참 행복해. 내가 같이 있어 줄 시간이 적어서 미안할 뿐이지. 앞으로 더 잘할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더 좋은 아버지 되도록 힘쓸게. 당신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자! 최후승리 얻기까지 후회 없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말이야. 내 일생에 제일 잘한 것은 바로 당신을 선택한 것이야! 하늘나라 가셔도 당신은 나의 신부야!



존경하는 남편 이규 씨, 오랜만에 손편지를 받아보나 기대했는데, 프린트 편지라 살짝 아쉬웠고, 나도 프린트 편지를 보내게 되어 서운해요. "중매로 만나 단 세 번 만나고 사랑한다는 고백은 아직 어려워도 행복하게 해주겠다" 청혼의 약속을 지난 31년 동안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줘서 고마워요. 나에게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또 일생 한 사람을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성품을 닮은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사랑법을 조금씩 알아가며 감사하게 하심도 행복의 가장 큰 이유지요.

이번 안식월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아픈 나를 배려하며 천천히 걸던 당신과 늘 당신의 큰 걸음을 따라 바쁘게 걸던 내가, 이제 서로 손을 잡아 줘야 하는 우리가 된 것도 참 의미가 있었지요. 산티아고를 걸으며 수없이 불렀던 '순례의 길' 노래.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 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손을 잡았던 그 시절 우리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남은 여정도 그렇게 같이 걸어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서 행복한 순례의 여정이었다"는 고백을 남기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짝, 이선아 드림.



그저 함께라서 좋은 부부의 기쁨

누군가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라더군요. 저절로 사랑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길 꿈꾸며 결혼했지만, 현실은 가시밭길 순탄치 않은 상황과 어긋나는 관계 속에서 절망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는 결심으로 고통을 덜어내려 하지만, 상처는 깊고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아버지학교와 부부학교에서 함께 봉사하는 김우남, 방경희 부부의 여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성장하며 ‘그저 함께라서’ 좋은 부부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곁에 있음에 감사한 순간들이 쌓여간다

우리 정말 사랑했는데

김우남 6년 전에 지인이 아버지학교를 권유하셨어요. 그때 말 들을 걸, 처음에는 왜 나한테? 난 괜찮은 아빠 괜찮은 남편인데? 갈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일 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또다시 권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내와 다툼도 많았고 아이들과도 안 좋아서 아버지학교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계속 미루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력하게 추천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남 아버지학교(온라인 1기)에 등록했습니다. 지금도 되게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뒤늦게 간 거에 대해서.

방경희 세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개인 성격 차이도 있다 보니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았던 거 같아요.

김우남 저희가 미술학원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고등학생 저는 재수할 때,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만남을 시작했는데, 서로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랑 전혀 달랐던 거죠.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아내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방경희 모든 게 맞지 않았어요.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좋아하는 음식도,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아예 안 되었죠.

김우남 그냥 개와 고양이?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서로 이혼 결심도 많이 하고….

방경희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우다 보니까, 계속 이러면 아이들에게 안 좋을 거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부부학교나 아버지학교도 접하지 못했고, 그냥 오롯

이 우리끼리 해결하려다 보니 ‘우리는 안되나 봐’ 절망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의 문제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학교와 부부학교로도 인도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아요.

이제 함께 있으면 좋아요

김우남 이혼도 생각하고 위기를 넘기도 하면서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없을 때였는데, 같이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원래 믿고 있었지만, 교회를 나가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기도하는 법을 몰랐는데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그 이후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울어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면서.

저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았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아빠, 못난 남편이구나! 받아들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구체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내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대해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쓸만한 아빠, 남편이 될 즈음에, 신기한 게 사람이 금세 잊더라고요. 또 예전으로 돌아가 힘들어졌을 때 아버지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학교 3주 차에 아내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심각하게 다툼 거예요. 편지는 다 써놓아서 읽어주면 되는데, 싸운 마당에 “무슨 아버지학교냐” 했죠. 조장님 전화하셔도 그냥 안 간다고, 집도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조장님이 매일 전화해서 저를 위해 새벽기도를 나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자존심 꺾고 집이 아니라 다른 데서 3주 차를 줌으로 접속했죠.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나중에 조장님 추천으로 스태프로 봉사하면서, 아버지학교 현장에 나가보니 줌(온라인)도 은혜가 있지만, '아, 현장은 또 다르구나!' 이후 감사하게도 계속 섬기고 있어요.

방경희 남편이 아버지학교에서 매주 숙제를 하고, 저희는 그걸 누리잖아요! 허깅하고 편지를 읽어주고 하니깐 아이들도 '아빠가 좋은 아빠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리고 스태프를 하니깐 예전처럼 망각할 수가 없죠! 적절한 시기에 아버지학교가 열리니까 계속 참여하면서 강의를 듣고 조원과 나누면서 도전받고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버지학교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는데,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좋은 아빠가 되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마음이 되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같이 다녀요. 캠핑이나 쇼핑도 같이해요. 보통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 아빠랑 안 다니려고 한데, 비록 다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사랑은 선 곳지 않는다

김우남 아버지학교와 부부학교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부부들이 함께 자신들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부부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갖고, 또 우리 부부의 언어가 서로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부부학교 스태프로

활동하면서, 매 기수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하나씩 도전하고 신혼 때보다 더 좋아요.

방경희 제가 막내로 자라면서 항상 받기만 하고 의존적이었는데,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의지하려고만 했어요. 그런 저에게 아이 셋이 생긴 거예요. 애가 애를 낳은 거죠. 엄마로서 너무나 연약했고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홈그라운드" 역할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고생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통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고 밖에서 속상한 일도 있을 텐데,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사랑으로 다시 힘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홈그라운드'가 되고 싶어요.

김우남 제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에게 뭐가 남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내와 자식 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제게는 전부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전부인 존재가 저에게 없었겠다, 남는 건 제 몸뚱이 하나랑 이 세상을 즐기는 쾌락, 공허밖에 없었겠죠. 최근에 5주 차 강의에서 "아버지는 선을 갖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과연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 딸이나 아들들이 속을 썩이면 버럭 화를 내요.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 없어!"라는 말을 내뱉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사랑에 선이 없다"라는 말씀을 떠올려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어렵겠다 하면서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



신현구 광주아버지학교 파하모니합창단 단장

파하모니, 함께 부르는 노래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독에 빠진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광주아버지학교 소속 '파하모니합창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난해 20주년 기념 공연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아버지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진심으로 부르는 합창이 더 뭉클하게 와닿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아버지들이 세상의 시름을 덜고 삶의 희를 풍성하게 풀어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학교 식으로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2006년 광주 21기를 수료한 신현구 형제입니다. 가족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1남 1녀를 두었고, 광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버지학교를 가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괜찮은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버지학교를 개설하고 담임목사님께서 강권하시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참여하다 보니,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아버지와 제가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밖에서는 천하에 호인이셨지만, 집에서는 너무나 엄격하셨던 아버지처럼 내 아들에게 똑같이 그러고 있구나, 깨달았던 거죠. 이후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바를 아들에게 실천하려는데, 처음 몇 개월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6개월 이상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제야 아들도 마음을 열고,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졌어요.

6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 아들에게 화를 안 내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 못지않게 바깥에서는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한테 화내는 모습을 못 봤다 할 정도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밖에서 호인 소리 듣기까지 얼마나 절제를 했겠습니까? 근데 집에 오면 긴장을 풀고서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화내고. 그러니 아들이 아무래도 어려워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학교 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절대로 화내지 말자' '큰소리치지 말자!' 6개월을 실천했더니 아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주더라고요.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내 잘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했으면 계속하던 대로 '당연히 훈계할 게 있으면 해야지!' 했겠죠. 하지만 우선 아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꼴사나운 걸 보더라도 아무 소리 않고, 좋게 다독다독하고, 안아주고 그랬죠. 물론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가끔 부족한 게 있으면 불려서 조용히 훈계하기도 합니다만, 6개월은 일절 화를 내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다. 그 효과를 톡톡히 봤죠.

수료 이후로 '아버지학교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겠다' 하고 계속 아버지학교 스태프로 봉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스태프로 섬기면서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지원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학교에서 변화했던 일도 상기하고, 상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거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테 뭔가를 더 줄 때 행복하듯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제가 더 행복한 거죠.



2024년 파하모니합창단 20주년 기념공연

파하모니 합창단 활동 계기는?

제가 2006년도에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는데, 수료식에 파하모니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노래 좋아하면 된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파하모니 합창단은 2003년도에 창단을 해서 3년 차였습니다. 그 이후로 19년 동안 합창단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를 뜻하는 파더(father)와 조화를 뜻하는 하모니(harmony)를 합쳐서 '파하모니'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파하모니합창단 단원 구성은 기본적으로 아버지학교 출신들이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마추어지만, 프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도 제각각입니다. 의사, 건축사, 공무원, 기업가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두 시간 동안 연습하고 있습니다. 벌써 21년 차가 되었군요.

아버지학교 2주 차에 바람직한 남성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럼 의미에서 파하모니 합창단이 지역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나요?

우리 단원부터가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독에 빠져있습니다.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 저녁이면 만사 제쳐 두고 연습을 하러 갑니다. 가서 찬양하는 자체로 모든 피로를 씻어내는 거죠. 요즘 도처에 지뢰밭처럼 잘못된 중독문화가 횡행하는데, 우리 합창단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정화를 이루며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역사회에 퍼져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 모습을 보면서 좋다고 느끼면서도 선뜻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잘 불러서 그럴까요? (웃음) 사실 저희가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합창은 누구 한 사람이 잘 불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합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지휘자님께서 잘 만들어가시니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누구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남성문화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진다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노래를 주고 연습하세요? 단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저희 정체성이 아버지학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찬송, 복음성가를 많이 합니다만, 대외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도 하기 때문에 대중가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진섭의 '새들처럼' 윤도현의 '나는 나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좋아하는데 잘 부르는 못합니다. 합창단에서 제가 제일 못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는 "일어나 걸어라"를 부를 때 은혜가 많습니다. 그 노래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채널 아버지학교TV에서 확인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러라. 내 너를 도우리

지난해 파하모니합창단이 20주년을 맞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 주신 염정호 지휘자님과 피아노 반주를 맡아주신 그의 아내 김현진 자매님에게 가장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휘자님은 아버지학교 출신이자 광주시립합창단 상임 단원이신데, 파하모니 창단부터 20년 동안 그냥 무료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 분도 같이 섬겨 주셨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계시기에 파하모니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조그만 전국대회지만, 나가서 2등을 한 적도 있고, 지역 봉사활동도 가끔 나가는데요, 한번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을 방문하여 합창을 한 적 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들들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참 뭉클했습니다. 또 저희가 가끔 아유회를 나가면, 그래도 합창단 이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요. 피아노나 신디는 없으니 아카펠라로 한 적이 있는데, 주변에 지나가시던 분들이 와서 듣는 통에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파하모니 합창단의 정체성은 '아버지학교'에 있습니다. 광주아버지학교 지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운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합창단이 벌써 20주년을 지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좋기만 했겠습니까? 특히 지난 팬데믹 때는 많이 힘들었죠. 모이기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함께하면서 20주년 기념공연까지 멋지게 하고 심기일전했습니다. 아버지학교도 30주년을 맞이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해달
본부아버지학교 15기 수료

장상태
평촌아버지학교 1기 수료

섬김의 길을 선택한 아버지학교 사람들

처음 아버지학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반갑게 인사하는 남성들을 만납니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아버지학교 봉사자로 헌신한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바로 “아버지운동 30년”을 이끌어 온 주역입니다. 더 좋은 아버지로 계속 성장하고 싶어서, 자신이 받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스스로 섬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버지학교 봉사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이해달 1998년도 아버지학교를 수료하면서 봉사자들의 열심에 보답하고자 아버지학교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후 조장으로 진행자로 그리고 당시에는 아버지학교 조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총무, 초대 한국본부장으로 씬 없이 달려오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가정이 이 정도로 큰 변화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매번 아버지학교에서 목도합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장상태 평촌아버지학교 1기 수료식 날, 수료소감문을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아버지학교 와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열심이 아내와 자녀를 아프게 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한 곳이 아버지학교입니다.

수료식 때 강사로 오신 김성묵 전(前) 이사장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시고 붙잡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열떨결에 본부아버지학교 21기 진행을 맡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래 봐도 아버지학교 이사장님을 배출한 진행자입니다(웃음). 최성완 현(現) 이사장님이 그기수를 수료하셨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해외아버지학교 아웃리치로 자카르타, 시드니,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곳곳을 다니며 진행을 많이 맡았고, 한국본부장과 교육본부장을 맡아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학교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해달 본부아버지학교에서 조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늘 일찍 와서 준비하던 한 조장님이 좀 늦게 헬레떡 들어오시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아버지학교를 지원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모시고 왔던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을 바라보며 ‘어디로 차를 몰고 돌진할까?’ 하다가 앞차를 콩 들이박은 거예요. 바로 앞차에 있던 조장님이 서둘러 내려 그분에게 “제 차를 받으셨네요?” 하니까 “제가 받았습

니까?” 되물더라고요. 그 소리에 ‘아, 이분이 심상치 않구나!’ 생각하고 차를 옆으로 붙이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학교로 모시고 온 거예요. 자살 직전에 어쩌다 아버지학교에 온 그분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주 못마땅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일요일,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또 아내가 없어서 ‘교회 갔구나’ 하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답니다. 급기야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배를 중단시켜버렸죠. 그런데 담임목사님이 전혀 화내시지 않고, 그분을 목사실로 모셔와 오만 욕설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의아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물으니까 “제가 정말 죄송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시고 아버지학교를 권하셨습니다. 당시 그분 사는 지역에 아버지학교가 열리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분당아버지학교에 5주 동안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료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훗날 아버지학교에도 헌신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암 진단을 받고 생명이 꺼져가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문병을 갔을 때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은 아버지학교를 한 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이제는 천국에 계시지만, 그 형제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상태 프랑크푸르트 1기를 진행자로 섬겼는데, 해외 1기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형제님이 프랑크푸르트 1기를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을 아버지학교 진행 중에 인터뷰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는데, 그분이 단 한 마디도 못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복받쳐 올라 계속 우시느라고, 인터뷰를 못 하고 내려가셨죠. 그 형제님이 우시니까 진행자인 저도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다음에 강사가 김성묵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올라오시자마자 또 계속 우시는 거예요. 진행자 울죠. 인터뷰하러 나온 형제님 울죠. 강사님 울죠. 그냥 프로그램이 감동으로 끝난 겁니다. 독일 교회를 빌려서 아버지학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스탠포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에 가득할 정도로, 차고 넘쳐서 폭발할 거 같았다.”

하나 더 말씀드리다면, 두란노아버지학교 초대 지도 목사님으로 계셨던 권준 목사님께서 시애틀형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시면서 시애틀 1기를 개설하였습니다.처음에 저희가 도착해서 보니 본당에 벽을 허물고 계셨어요. 장소가 좁으니까 벽을 허물고 쇠기둥을 대서 아버지학교를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동행한 이귀상 형제님은 한국에서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자동차를 팔아서 아유틀리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시애틀 1기를 섬기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어려운 중에 많은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채권자들을 전부 불러모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다시 시도해서 좀 기다려 주신다면,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이분 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아버지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저하고도 돈독하게 지냈는데, 몇 해 전 돌아가셨죠.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기억이 많이 나는 형제님이십니다.

아버지학교 사역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해달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아버지학교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갈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학교를 했을 때, 지금 41살 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고, 서른여덟 살 된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아버지학교 사역에 나가야 하는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할까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또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 시간을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거 같아요. 아버지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균형 잡는 게 제일 어렵기도 했고, 가장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상태 저는 한국본부장으로 섬기면서 프로그램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항과 갈등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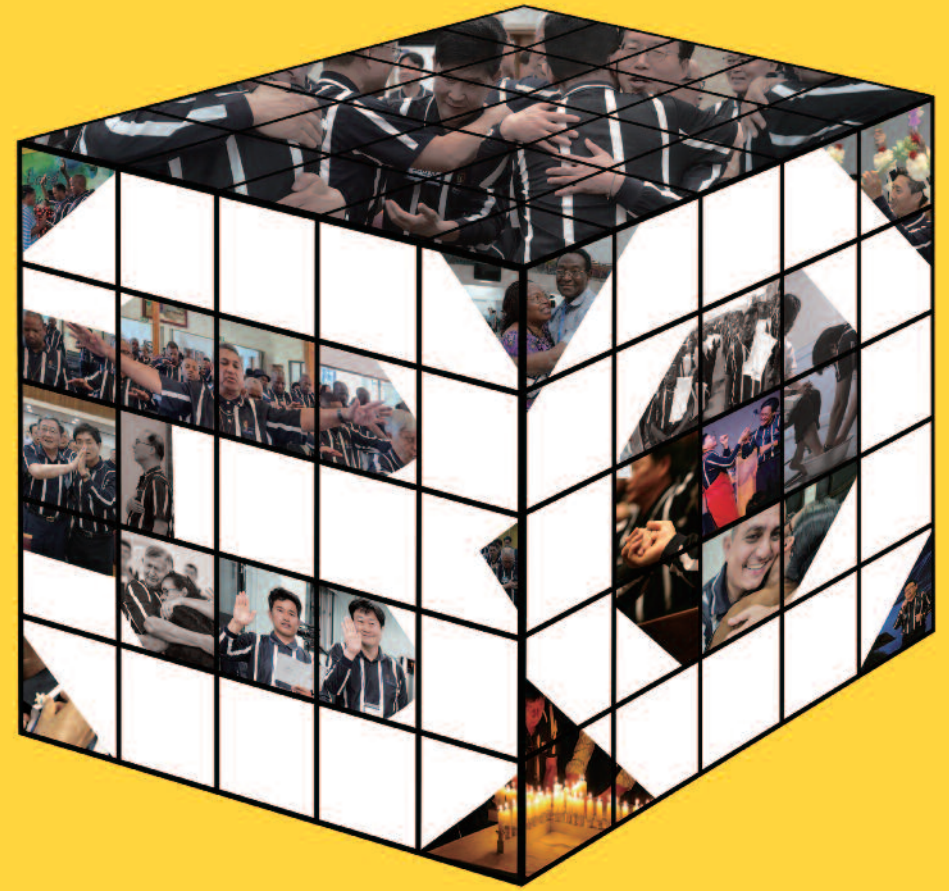
는 '감동' 때문입니다. 아버지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변화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감동은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죠.

아버지학교 30년을 돌아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해달 저는 아버지학교에 헌신하시는 형제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섬겨줄 수 있을까!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아버지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지원자 입장에서 아버지학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자가 그기수에서 포기하면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비율이 너무 극소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를 바라볼 때, 그분들에게 이번 아버지학교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섬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상태 아버지학교가 30년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버지학교를 사랑하고, 헌신하신 스태프 형제님들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한 것은 평신도 스태프들도 많이 세웠지만, 평신도 강사들을 많이 세우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고 있다는 감사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죠. 그것이 아버지학교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더 겸손하게 지원자 중심의 아버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

ALL FATHERS' MOVEMENT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걸어갈 30년



파더블레싱
아버지운동 30년 기념행사
2025.8.30(토) 오전 11:30
양재온누리교회

아버지학교수료자 & 가족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FATHER SCHOOL

30주년 기념 홈커밍 가족 챌린지

2025 두란노아버지학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모든 수료자와 가족이 모여 함께 걸어온
30년을 축하하고, 함께 걸어갈 30년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전국 지부 릴레이 [홈커밍 가족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1 어떻게 참여할까요?

챌린지 기간 : 2025년 2월 22일 ~ 6월 30일

- 1 지부 수료자 & 가족이 함께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 2 [홈커밍 가족 챌린지] 행사 일정을 지부 담당간사에게 알리고, 참여자 인원을 전달합니다.
- 3 행사 기념품을 수령하여 [홈커밍 가족 챌린지] 미션을 함께 완성합니다.

챌린지 비용은 지부후원재정지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여 지부에 30주년 기념 스포츠타올을 보내드립니다.

2 가족챌린지 미션, 함께 완성!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사무국 담당간사에게 보내주세요.

- 1 지부 수료자 & 가족이 함께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걸어갈 30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 2 아버지학교 체조하기 >> 영상 촬영
아버지학교TV_아버지학교 체조 영상 참조하기
- 3 지부만의 독특한 챌린지 실행하기 >> 영상 촬영
트래킹, 등산, 자전거 타기, 쓰레기 줍기 등
- 4 챌린지 단체 인증샷 찍기 >> 사진 촬영
30주년 기념 ALL FATHERS' MOVENT 스포츠 타올 번쩍 들고 찍기

HOME COMING DAY

아버지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아버지학교 '나눔'에서 '공감'을 배웁니다

일명 '남성들의 수다'로 어디에서도 자기 속내를 표현하지 못했던 남성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통해 배우며 '형제애'를 다집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많은 아버지들이 함께 좋은 아버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버지학교는 아버지 '인생의 멘토'입니다

아버지학교의 전문성은 아버지학교를 섬기는 스태프들(헌신자)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 선배로서 아버지의 길을 조명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의 강의를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지원자들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갑니다.

아버지학교는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섬김'을 통해 세워집니다. 아버지학교는 가장 큰 섬김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진정한 남성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훈련합니다.

아버지학교 수료자는 '순결운동'에 동참합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불신사회를 신뢰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몸과 마음,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학교 수료자는 '순결서약식'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삶을 지향합니다

홈페이지



입학하기



카드뉴스



아버지학교TV



HISTORY

2025 새로운 아버지학교의 희망

시대 변화에 따라 하이브리드(온라인, 오프라인) 아버지학교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역이나 국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아버지운동의 또 다른 차원을 열었다. 더불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버지의 사회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2015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4년까지 국내 74개 지부, 국외 75개 국가, 총 수료자 431,272명으로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1 세상을 향한 아버지운동

아버지학교는 "성령운동, 연합운동, 삶의 실천운동"으로서 아버지들이 함께 나아갈 비전을 선포하였다. 2000년 초부터 기독교를 넘어서 열린아버지학교로 기업, 관공서, 학교, 군부대 등으로 확산되었다.

1995 두란노서원에서 첫 개설

성경적인 아버지 상을 추구하며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의 역할과 올바른 권위를 회복시키며,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서 아버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CURRICULUM

- 01 아버지의 영향력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아버지의 영향력 바로 세우기
- 02 아버지의 남성 잘못된 남성문화와 결별하고, 진정한 남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 03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 개인 사명과 사회적 사명 바로 세우기
- 04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버지 영성
- 05 아버지와 가정 친밀한 부부관계와 가정 소통을 훈련하고, 결단하는 의식

말씀으로 성령을 숨쉬며 산다

말/숨/삶 『잠언』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3, 6)



성경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은 많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을 숨쉬며 사는 새로운 성경 읽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초대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 성서학자의 본문 해설,
목회자의 영감의 언어로 풀어낸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봉 지음 | 117×200(국판 변형) | 240쪽 | 15,000원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

구입문의 ☎ 02)399-2008~9 www.kmcpres.co.kr 전국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5 가정예배서

하늘양식



카톡 선물하기도
가능합니다

188×240mm | 416쪽
값 18,000원

깊이 있는 말씀, 쉬운 사용법, 폭넓은 쓰임새

이 한 권으로 가정예배 준비 끝!!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늘양식』은 일상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일깨워 주는 소중한 가정예배서이자 개인 묵상집입니다. 365일 이 책과의 동행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삶의 가치를 맞볼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

구입문의 ☎ 02)399-2008~9 www.kmcpres.co.kr 전국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최성완
기획 편집 김문영
디자인 제작 블루핀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25년 1월
발행처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13길 9
전화 02-2182-9100
팩스 02-529-9230
홈페이지 www.father.or.kr
유튜브채널 아버지학교TV

